

순천시, 수소경제 육성 '생태수도 위상' 굳힌다

수소경제 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특화단지·모빌리티 보급 확대
2027년까지 수소에너지 체계 구축

'생태수도'를 내건 순천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수소 경제 계획 수립을 알렸다. 시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기반으로 '순천형 수소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맡는다. 연구 용역은 중간보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에 마무리한다. 수소 경제 육성 계획에는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수소 교통 수단(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 도시 조성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순천시가 지난 20일 열린 '수소 경제 육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번 착수 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관련 부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용역 내용에 반영된다. 순천시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400억원 규모 '수소 도시 조성사업'에도 도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소 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비 20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 등

4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에 주가·교통·산업 기반 시설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담겼다. 우선 행복주택 300세대와 지역대학 기숙사 등

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산업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8km 길이 수소 배관을 조성해 수소산업 토대를 닦아놓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계한 수소 열차를 도입하고, '수소 시티투어 버스', 수소 청소차 등 교통 부문 활성화도 꾀한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순천지역 첫 액화 수소충전소가 가동에 들어선다. 국비 42억원과 민간 사업비 67억원 등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4051㎡ 부지(건축면적 1169㎡)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된다. 가동 수소충전소가 준공·운영되면 하루 동안 버스 110대, 승용차 2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장지만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차장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가·교통부문에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교체가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생태경제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로의 대전환에 앞장서고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포스코 신입사원 44명 참석



광양시는 지난 22일 포스코 신입사원 44명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찾아가는 인구교육(사진)'을 했다. 이날 광양제철소 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교육에는 포스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44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인구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와 포스코인재창조원이 협력이 올해 첫 강좌를 열었다.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광양시가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123가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인구 정책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광양시는 정주기반 확충, 아이 양육 돌봄, 청년 자립 지원, 노후 활력 지원, 인구변화 대응 등 5대 추진과제 90개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광양 구현'을 내걸고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봉래 광양시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포스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이 우리 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섬 주민 의료서비스 1000명까지 확대

여수시는 올해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사진)' 대상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의료서비스를 벌여 섬 주민 404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의료통합 서비스'를 10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봉사단체가 협력해 섬 주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서비스에는 여수백병원과 여수에양병원, 여수편안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 의료기관이 동참한다. 지역 아·미용협회와 일공공일안경원 등 단체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올해 첫 일정으로 23일 남면 안도리 주민 150명을 찾아 통합 의료서비스를 벌였다. 참가 주민들은 신경외과 무료 시술과 만성질환 관리 교육, 상비 약품·돌보기 제공, 이·미용 서비스 등을 받았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 추진으로 지역 간 보건의료지원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의료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 추진으로 지역 간 보건의료지원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의료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꼽히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예방접종하면 평생 면역이 줄고 발병하더라도 통증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다.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주민 등록초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를 찾으면 접종할 수 있다. 고흥읍에 사는 장모(65)씨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망설였는데,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 원예·과수 국고 지원사업 126명 선정

곡성군이 원예·특작·과수 분야 국비·도비 지원을 받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최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심의회에서는 5억원 규모 8개 사업의 대상자 126명을 선정했다. 지원 사업에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과수 생산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20억원 규모 10개 사업 대상자 187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이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추가 신청받는 사업은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과수 생산기반 구축으로 5개 사업이다. 보조금은 1억원 규모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판소리성지'에서 오는 5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 락' 공연이 열린다. 지난해 공연 모습. <보성군 제공>

구성진 우리 가락... '토요상설 락' 공연

보성군 5월 27일까지 12회 무대 보성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리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토요상설 락(樂)' 공연을 연다. 무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판소리성지 전수교육관 2층에 마련된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열리는 공연에서는 창극과 퓨전 국악, 판소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달 창단한 보성군립국악단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타악그룹 열수, 사단법인 구례향제출품류보존회, 호남연희예술단 등도 만날 수 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놀이도 마련됐다.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판소리성지'에는 판소리 전수교육관, 비조 박유전 선생 기념비, 판소리 전시관, 판소리 다섯마당, 야외마당, 정음민 생가, 탐방로 등이 있다. 인근에는 유명 관광지인 보성 차밭과 울포술밭해변 등이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공연을 즐길 시간이 부족한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에게 매주 토요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아름다운 보성의 풍경과 함께 보성소리의 우수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판소리성지 행사 일정은 전화(061-852-5203)로 문의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